

2 뉴스클리핑

1. 국내외 반도체산업 주요 뉴스

▶ "내년 車반도체 예산 대폭 증액...자율차 등 미래차 R&D 지원"

원문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 장기화에 대비해 내년에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며 "2025년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미래차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할 밝혔다. 이날 서울 상암 자율주행시범지구에서 열린 '제8차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K-반도체, 민·관 협력으로 위기 돌파구 마련하나

원문보기

반도체가 차량용을 시작으로 IT·전자용까지 품귀현상이 빚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소용돌이가 치고 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자급론이 대두되고 미국과 중국간 반도체 패권주의 경쟁이 부상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업체들의 운신 폭 축소 우려가 커지면서 대응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반도체·자동차·조선 주력산업 회복 중...기업·정부 한몸 돼야"

원문보기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는 철치부심하면서 반도체·자동차·조선·해운업 등 주력 산업의 회복과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를 비롯한 신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제 주력 산업과 신산업의 힘을 더 강하게 키울 때다. 거센 변화의 파고를 이겨내고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반도체 전쟁 나선 세계 열강들...대한민국, 위기냐 기회냐

원문보기

디지털 혁명의 쓰나미 속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지만 올해 들어 반도체 품귀로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의 생산라인이 멈추면서 반도체 민족주의가 민낯을 드러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서 표면화했듯 반도체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반도체 칩 없인 시민의 일상생활이나 공공인프라, 서비스나 첨단 제품 생산, 무기시스템의 운용은 불가능하다. 국가의 생존 필수품이자 포기할 수 없는 안보 자산이다

▶ 바이든-스가 첫 정상회담...52년만에 '대만' 언급하며 中 견제

원문보기

미국과 일본 정상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대면 정상회담을 처음 열고 중국 견제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양국은 52년 만에 공동성명에 '대만'을 명시했다. 이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미·일 3국 공조의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6세대(6G) 이동통신 개발에 총 45억달러, 약 5조원을 투자하는 등 경제 부문에서도 협력을 다짐했다.

▶ 반도체 끌고 친환경차 밀고 올 무역 1조달러 시대 연다

원문보기

지난해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한 시스템반도체·친환경차·전기차 배터리·바이오헬스·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신산업 5대 품목이 올해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수출 흐름과 세계경제 회복 기대 등을 반영해 올해 수출액이 전년 대비 18.1% 증가한 6053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상향조정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0월 전망치인 5643억달러보다 10.1% 증가한 것이다.